

## 상허(尙虛)의 작품(作品)과 그 예술관(藝術觀)

이태준 씨의 <달밤>은 나를 양분시키고 고통과 애감(哀感)으로 채워 주었다. 그리하여 끝내는 나를 울리고야 말았다. 나의 눈물을センチ멘탈하고 값싼 눈물이라고 조소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조금도 내가 흘린 눈물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달밤> 속에서 애답고 괴롭고 추악한 인생을 보았다. 어찌 내가 흘린 눈물이 부끄러울 것이냐?

눈물은 결코 「창조의 부정」은 아니다. 괴롭고 안타깝고 괴로울 때 흘린 눈물이 얼마나 영(靈)을 정화하여 주며 정신을 고양시켜 주느냐? 얼마나 험하고 괴로움 많은 인생에 돌아갈 새로운 용기를 부여주느냐?

그렇다.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우리를 울렸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눈물에 침닉(沈溺)하여 실망낙담하고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고 인생에 돌아가게 하였다. 상허는 어떻게 하여 우리를 울리고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었느냐?

그것은 사랑과 동정을 통하여서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그것을 보여주려면 작가는 먼저 인생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생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려면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은 어머니인 줄을 안다. 그것은 가장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상허는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괴로운 사람들과 같이 괴로워하고, 슬픈 사람들과 같이 울고, 외로운 사람들과 같이 서글픈 웃음을 웃었다. 우리를 울린 것이 그의 깊은 동정심이다. 상허가 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 울었다.

그러나 또한 상허는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곧 눈물을 씻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울 때에도 그의 이마에 절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인생에 낙망하지 않는다. 그는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 마지않는다. 악착한 현실의 구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늘 눈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전권(全卷)을 통하여 페이소스와 함께 고요히 용솟음쳐 흐르고 있는 유머를 발견할 수 있는 소이가 이곳에 있다.

유머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어루만지는 마음이다. 태산(泰山)이 울었다. 그러나 사자도 범도 나오지 않고 쥐가 한 마리 기어갔다. 우리는 그 쥐를 막대로 칠 것이냐? 돌로 때릴 것이냐? 우리의 긴장한 마음이 급격한, 그러나 보드라운 커브를 돌아 끝내 잔잔하여질 때 우리는 그 쥐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우리가 꿈과 희망 속에 살 때 인생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천사는 나오지 않고 험뿔고 상처난 거지가 나왔다. 이 현실의 악착한 얼굴을 볼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외면을 한다. 그리하여 환멸의 심애(甚愛)를 느끼고 혹은 자포자기한다.

그러나 상허는 그 거지를 어루만진다. 그에 대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꾼다. 거지의 입가에서 천사의 웃음을 찾고, 악인의 눈 속에서 신의 축복을 본다. 이리하여 이 〈달밤〉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소위 악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불우선생, S, 강군, 산월이, 박, 안영감, 윤선생, 명옥이, 방서방과 그의 아내, 황수건, 정갓난이, 은희 부처(夫妻), 장군이…… 상허는 이렇게 많은 악의 없는 지기(知己)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었다. 그들 중에서도 불우선생, 안영감, 황수건 같은 인물은 상허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이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결코 지옥이 아니다. 그곳에는 천국의 그림자가 깃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 더러운 현실에서 천국을 찾는 것이 예술가다. 예술가는 명랑하고 유쾌한 현실에서 외면하고 까닭 없이 괴로워하는 부질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예술가는 기쁨을 쫓고, 고통을 위한 고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길 떠난 모험가다. 보들레르의 우울도, 도스토예프스키의 고뇌도, 스트린드베리의 번민도 이 암흑하고 추악한 현실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으려는 끊임 줄 모르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다. 이리하여 끝내 보들레르는 인생의 암흑 면에서 미를 찾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저주받은 현실에서 신을 보았고, 스트린드베리는 고뇌와 번민으로써 현세에서 일종의 체념을 통하여 평화를 발견하였다.

상허도 또한 이 길을 떠났다. 그렇다. 그는 보들레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스트린드베리와 같이 심각한 고뇌와 자기분열의 긴 시기를 지나지 않고도 쉽사리 이 추악한 현실에서 미와 꿈을 찾고 신의 축복을 보았다. 이는 전자의 세 사람은 처음부터 회의를 안고 머리를 숙이고 현실의 구렁에 침잠하였으나, 상허는 처음부터 반드시 이 현실에서 미와 꿈과 신의 축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현실의 구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눈은 하늘의 별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달밤〉 속에서 밤과 같은 우울과 맹렬한 자기분열

에서 오는 심각미를 맛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곳에는 천국과 미와 평화에 대한 동경에서 오는 옅은 감상과, 현실에서 이것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에서 오는 보드라운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본다.

상허는 사색하는 사람은 아니다. 추리하거나 관념의 전당(殿堂)을 쌓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고원(高遠)한 철리(哲理)나 심대한 인생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엄숙한 얼굴로 연단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다. 즉 그는 소위 「위대한 예술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선량한 예술가」다. 그는 미묘하고 예민한 피부로 감각하는 사람이다. 참벌처럼 미와 꿈을 주워 모으는 사람이다. 나직하고 고요한 노래를 넣어주는 사람이다.

「위대한 예술가」를 철인(哲人)이라면 상허는 시인이다. 「위대한 예술가」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상허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예술가」는 꿈과 평화를 잃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 위안을 받기에는 너무나 엄숙한 아버지다. 그러나 「선량한 예술가」는 그의 미소만 보아도 괴로움과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그들의 자모(慈母)다. 이리하여 상허의 예술은 언제나 괴롭고 슬픈 사람의 우수와 고통을 잊게 하여 줄 것이다.

예술가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동정뿐이 아니다. 추악한 현실에서 천국을 보고, 괴로움에서 기쁨을 찾는 것만이 아니다. 그는 천국을 그리고 기쁨을 표현할 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그가 고결한 상(想)을 포회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기교에 있어 치졸할 때, 그는 그 상을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상허는 그의 높고 맑은 상뿐이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놀라운 기교까지 갖추고 있다.

이은상 씨가 <달밤>의 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허의 글은 「진실로 달밤 같은 글이다. 달밤같이 향기롭다. 깨끗하다.」 상허의 간결하고 수정같이 명랑한 글은 씨의 달밤같이 맑고 고요한 상과 얼마나 황홀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느냐? 형식과 내용의 혼연한 일단(一段)! 이 형식 없  
이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없고 이 내용 없이 이 형식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예술에서일수록 우리는 내용 즉 형식, 형식 즉 내용이라는 느  
낌을 가진다.

《개벽》, 복간 1권 2호, 1934. 12. 1)